

#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교체 전열 재정비

### 40대 野 정치인 신임 장관 지명 젤렌스키 드론 대량 생산 선언 러시아 본토 타격 본격화 주목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는 또 빠르게 올가을부터 드론 생산에서 '불'을 일으키겠다고 선언, 러시아 본토 타격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AP 등에 따르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렉시 레즈니코우(57)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국방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레즈니코우는 550일

이상 전전전을 겪었다"면서 "국방부가 새로운 접근법과, 군대 및 사회 전체와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국방장관 교체로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면전을 시작한 후 가장 큰 규모로 국방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2021년 11월 국방장관직에 오른 레즈니코우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을 술하게 방문하며 수십억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끌어오는 데에 앞장섰다.

로이터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레즈니코우가 동맹국 국방장관, 군 관계자들과 강한 친밀감을 쌓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방부가 식량을 부풀려진 가격에 구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으로 야당 정치인인 루스텐 우메로우(41) 국유자산기금 대표를 지명했다. 국방장관 지명자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정식 임명된다.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우메로우 대표는 크림 타타르인으로 야당인 홀로스(목소리)당 소속 의회 의원이다.

전쟁포로·정치범 맞교환 협상과 점령지 민간인 대피 등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와의 흑해곡물협상을 논의하는 대표단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유자산 민영화 감독하는 기관인 국유자산기금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조직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 MS '워드패드'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 향후 출시 제품서 제거 예정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Windows)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포함돼 있던 워드프로세서 '워드패드'가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MS의 웹사이트 공지 내용에 따르면 워드패드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향후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제거될 예정이다.

MS는 ".doc" 및 ".rtf"처럼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에는 'MS 워드'를, '.txt'와 같은 일반 텍스트 문서에는 윈도 메모장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간단한 텍스트를 쓸 때는 메모장을,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MS 워드'를 쓰라는 얘기다.

MS는 1995년 출시한 '윈도 95'부터 워드패드를 기본으로 탑재해 제공해 왔다. 다만 2020년부터는 선택적 기능으로 분류돼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삭제할 수 있었다.

MS는 이번에 워드패드를 없애는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최근 이 기능의 효율도가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최근 메모장 프로그램에 '자동 저장' 등 기능을 추가해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워드패드를 없애는 대신 메모장 기능을 개선하고, 문서 작업에는 유료 워드 프로그램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미국 네바다주 '버닝맨' 축제 폭우로 7만명 고립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의 축제 현장이 폭우로 진흙탕이 된 모습. '버닝맨(Burning Man)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 지역에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기습적 폭우가 내려 참가자 7만여명이 고립됐다. /연합뉴스

## “매카트니 기타 찾아라”... 전 세계 수색 캠페인

### 1969년 분실한 베이스 기타 제조사 공개 프로젝트 진행

영국 록 밴드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가 1969년 잃어버린 베이스 기타를 찾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타는 비틀스의 베이시스트이자 피아니스트, 리드 보컬 겸 작곡가였던 매카트니가 1961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30파운드(38달러)를 주고 샀다.

이 기타는 매카트니가 '러브 미 두(Love Me Do)', '쉬 러브스 유(She Loves You)' 등을 연주할 때 사용했고, 1969년 '겟 백(Get Back)' 녹화를 마친 뒤 사라졌다.

매카트니는 최근 기타 제조사인 호프너에 이 기타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회사 측은 '호프너 500/1 바이올린 베이스 기타'를 찾기 위한 '로스 트 베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호프너사의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닉 와스는 매

카트니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 기타에 관한 책도 출간하는 등 "로큰롤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를 풀려 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와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틀스를 만든 것은 바로 그 베이스 기타였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BBC에서 기자로 일했던 스콧과 나옴이 존스 부부도 이 기타를 찾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스콧은 매카트니가 지난해 글래스탄베리에서 이 기타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대서특필된 뒤 관심을 갖고 호프너사에 연락했다.

이 기타의 경매가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존 레논이 잃어버렸던 기타는 반세기 뒤 나타난 240만 달러(약 31억 7천만 원)에, 커트 코베인이 MTV의 '엔플러그드' 공연에 연주했던 어루스틱 기타는 600만 달러(약 79억 원)에 팔렸다.

매카트니의 시대를 규정하는 호프너 기타는 이보다 더 비싼 값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찾기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상업적 동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美, 중국 견제 위해 월남전 악연 베트남과 협력 강화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베트남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베트남이 CSP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 인도, 러시아, 중국 등 4개국뿐이다.

베트남은 조약 동맹국이 없는 국가로, 다른 나라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3가지 형태의 양자 관계를 맺어왔다.

베트남은 10년 전 미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미국과 최고 수준의 양자 관계를 맺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이 양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데는 통상 수년이 걸린다고 WP는 전했다.

양국이 관계 격상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에 맞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

략이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아울러 베트남도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균형추로 삼을 수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격상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베트남은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양국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국방 및 안보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모함의 베트남 입항, 합동군사훈련, 무기 판매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 ‘내륙의 바다’ 남미 티티카카 호수 말라간다

### 300만명 생계 타격 위기

배를 띄워 운항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이자 300만명 삶의 터전인 남미 티티카카 호수가 기후 변화와 사람들의 무분별한 물 남용으로 수위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3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일간지 엘데베르와 페루 일간지 엘코메르시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남미 안데스산맥 알티플라노고원 해발 3310m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의 수위가 최근 수년 새 지속해 낮아지고 있다.

페루 기상수문청 푸노 지역 담당 식스토 플로레스는 CNN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 지역 강수량이 평균보다 49% 줄었다"며 이 기간

에는 보통 수위가 회복되는 우기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위성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 티티카카 호수는 연간 약 1억 2000만톤의 물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볼리비아 기상수문청은 최근 티티카카 호수 수위가 역대 가장 낮았던 1996년 때보다 25cm 높은 정도라고 밝혔다.

볼리비아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에 더해 푸노 지역 관광 활동으로 인해 호수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물 세척 과정에서 호수의 물을 무분별하게 끌어다 쓰면서 수위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